

가정 예배 모범

- 2022_05_29_장기중앙교회

매일성경 5월호 가정예배_성서유니온 선교회 홈페이지 자료실

▶ 함께 기도 (예배를 시작하며 기도문을 읽습니다)

=> 매일 넘어지고 실수하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긍휼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함께 찬양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 주는 완전합니다(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 함께 읽기 (주일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 사무엘상 14장 24~ 35절

▶ 함께 묵상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1) 사울이 백성들에게 아무 음식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는 무엇입니까?(24절)

사울은 백성들에게 블레셋을 보복할 때까지는 음식을 먹지 말라는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의 명령에는 블레셋을 완전히 섬멸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지만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로 지쳐있었습니다. 사울은 이전에 성령에 감동되어 하나님을 위한 신앙심에서 내렸던 명령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의 이 무모한 명령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결과들을 생기고 맙니다. 이처럼 어떠한 결정을 내리거나 일을 진행할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열심과 열정보다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분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2)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은 무엇입니까?(32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금식령과 계속되는 전투로 인하여 매우 지치고 허기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먹는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굶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소와 송아지를 잡아 피 있는 채 먹는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이는 고기를 피 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긴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믿음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욕망을 따라 행동하여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보다 욕망이 앞서 가서는 안됩니다. 우리 가정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 함께 나눔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